

중국 예능, 서현·손예진 영정사진 합성해 비난



사진이다.

방송을 접한 중화권 누리꾼들은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건 너무하다.”, “외국 연예인 사진을 막 가져다 써도 되나?”,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놓으면 팬들의 마음은 아프다.” 등 항의하는 글을 웨이보 등 SNS에 게재

▲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영정사진(왼쪽), 오른쪽은 영정사진에 사용된 손예진(위), 서현(아래) 원본사진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녀시대 서현과 배우 손예진의 사진으로 영정사진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의 시나연예 등은 “지난 4월 27일 중국 망고 TV의 예능 ‘밀실탈출-어둠의 고백’에서 해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송에서 쓰인 8장의 사진 중 3장의 사진은 손예진의 사진, 1장은 서현의 사진이고 2장은 일본 유명 아이돌 아라시의 리더 오노 사토시의

하며 항의했고 이에 제작진들은 웨이보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제작진은 사과를 하면서도 “인터넷상의 사진을 랜덤으로 합성한 것이라 고의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난을 가중시켰다.

손예진 측은 “해당 영상을 체크했고, 웨이보를 통한 사과글과 다시 올린 재편집 영상도 확인했다.”며 “정규 방송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와이스, 8연속 1억뷰 달성



트와이스 ‘왓 이즈 러브?(What is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뷰를 돌파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데뷔곡부터 8연속 1억뷰 돌파의 대기록을 달성했다.

트와이스가 지난달 9일 공개한 미니 5집 타이틀곡 ‘왓 이즈 러브?’ MV는 공개 약 36일 만인 16일 0시께 1억뷰를 넘어섰다. 해당 MV는 공개 후 K팝 걸그룹 사상 최단기간 2,000만, 3,000만, 4,000만, 5,000만뷰 돌파 기록을 잇따라 수립하며 8연속 1억뷰 달성을 일찌감치 예고했다.

특히 트와이스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 하계)’부터 최근 ‘왓 이즈 러브?’까지 8곡의 모든 활동곡을 빠짐없이 1억뷰 반열에 올라며 백발백중 히트를 기록하고 있다. ‘데뷔곡부터 8연속 1억뷰 돌파’는 K팝 사상 최초 신기록으로 트와이스는 다시 한 번 아시아 원톱 걸그룹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 가운데 ‘TT’ MV는 지난해 12월 22일 한국 여성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3억뷰를 달성한 데 이어 1일 3억 5,000만뷰를 넘어서며 독보적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우아하게’와 ‘치어업(CHEER UP)’, ‘라이키(Likey)’의 MV도 2억뷰를 돌파하며 여전한 조회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휘트니 휴스턴, 어릴 때 성적 학대 당해”

고 휘트니 휴스턴(가운데)이 어린 시절 동성 사촌이자 가수였던 디디 워윅(Dee Dee Warwick)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했다. 이에 대해 “휘트니 휴스턴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있던 수치심,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남편이 몰랐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7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케빈 맥도널드 감독은 휘트니 휴스턴의 가족 및 친척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휘트니(Whitney)’를 연출해 칸 영화제에서 개봉했다.

이 영화의 감독 케빈 맥도널드는 휘트니 휴스턴의 이복 오빠로부터 “자신도 디디 워윅에게 학대를 당했으며 그녀가 휘트니도 학대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의 부인 역시 휘트니 휴스턴에게 이 사실을 들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휘트니 휴스턴의 또 다른 친척 역시 그녀가 학대 받았던 사실을 확인해줬다.

영화 제작자 측은 이 사실을 전 남편이었던 바비 브라운에게 알렸지만 그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라고 답

했다. 휘트니 휴스턴은 지난 2012년 2월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 있는 호텔 베벌리힐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휴스턴이 코카인 중독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호텔 욕조에서 익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워윅은 휴스턴에 앞서 2008년 세상을 떠났다.

1212호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무속(巫俗), 점술(占術), 학술(學術)의 구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무속(巫俗)과 점술(占術) 그리고 학술(學術)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무속(巫俗)의 경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당(巫堂)이라는 중재자가 신령(神靈)과 사람을 중재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이다. 무속(巫俗)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신(神)이라는 존재에 의지해서 굿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진 학문이나 학술과는 전혀 무관하다. 점술(占術)의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나 알고 싶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점(占)을 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하늘에 물어본다는

의미가 된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앞날에 대해 알고자 점(占)을 치는 행위로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길(吉)이라고 보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면 흉(凶)하다고 보는 것이다. 점술(占術)의 경우는 무속처럼 신(神)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무식하게 무작위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진 학문이나 학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점술(占術)이 바로 주역괘(周易卦)에 의한 괘사풀이나 타로 카드가 있다. 반면에 학술(學術)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존재나 무작위로 얻어질 수 있는 점술(占術) 같은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순수하게 자연과학적인 관찰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자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논리성과 객관성을 가진다는 점이 앞에서 설명한 무속이나 점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한 것처럼 무속(巫俗)이나 점술(占術) 그리고 학술(學術)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서로 다른 분야로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 ★ 사주명리·풍수·수맥감정 전문 ★
- ★ 사주명리(四柱命理) 수강생 모집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